

[1~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운 : 진희야, 잘 지냈니?
 진희 : (밝게 웃으며) 전학 가고 나서 처음 만나네. 새 학교는 어때? 좀 적응은 되었니?
 다운 : 응, 적응하려고 하는데..... ㉠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군다.)
 진희 : 왜? 무슨 고민 있어?
 다운 : (머뭇거리며) 그냥 좀.....
 진희 :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사이에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어?
 다운 : ㉡ 그래, 너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다. 너는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친한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 특히 점심시간마다 누구랑 밥 먹어야 할지 고민이야.
 진희 : ㉢ 정말? 어떡하니? 너 정말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나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힘들 거야.
 다운 :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래서 저번 학교 친구들이 자꾸 생각나. 더 걱정되는 건 내일 학급 자치 시간에 자기소개를 한다는 거야.
 진희 : (미소를 지으며) ㉣ 너희 반에서는 그런 것도 하니? 잘 됐네. 너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준비가 안 된 거야?
 다운 : 발표 내용도 준비하고 연습도 몇 번 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지금부터 긴장돼.
 진희 : ㉤ 그래도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네가 말을 제일 잘 하잖아.
 다운 : 그래 맞아. 그런데 그건 친구들과 있을 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겠어. 내일도 실수할 것 같아서 잠도 못 잤어.
 진희 : 발표 준비는 다 마쳤다고 했으니, 마음만 잘 먹으면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야. (㉥)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비언어적 표현이 대화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② ㉡ : 대화 참여자에 대한 신뢰가 자아의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③ ㉢ : 대화 참여자의 공감하는 태도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④ ㉣ :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⑤ ㉤ : 대화 참여자가 공유하는 경험이 대화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보기>를 참조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말하기 불안’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전이나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이다. 이러한 말하기 불안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성공하는 장면을 그려 본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본다면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 ① 학급 자치 시간에 발표를 잘해서 칭찬받는 모습을 상상해 봐.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 ② 학교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차츰 괜찮아질 거야.
- ③ 발표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발표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 봐.
- ④ 너무 즉흥적으로 발표하려고 하면 안 돼.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발표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 봐.
- ⑤ 느슨한 마음이 실수를 불러올 거야. 이번에 실수하면 다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할 수는 없을 거야.

3.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 생 : 안녕하세요. 저는 △△ 고등학교 신문부 기자 ○○○입니다. 학교 신문에 실을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건축물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해설사 : 그렇다면 관측사가 좋겠네요. 관측사 미륵전에 적용된 차경 기법은 현대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학 생 : 차경 기법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무슨 뜻이죠?

해설사 : (사진을 보여 주며) 여기 미륵전 안을 보면 알겠지만, 실내에 불상은 없고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의 뒤에 창이 나 있어요. (창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세요.

학 생 : 창밖에 있는 불상의 얼굴이 창에 가득 차 있네요.

해설사 : 바로 이것이 차경 기법을 활용한 것이예요. 벽의 특정 부분을 개방하여 집 안에서 외부의 풍경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차경 기법이라고 합니다.

학 생 : 일반 건물의 창도 집 안에서 밖의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미륵전의 창은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설사 : 일반 건물에 설치된 창은 주된 기능이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차경 기법을 적용한 창은 특정 대상에 대해 집중하도록 합니다. 창이 회화의 액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학 생 : 아, 이 건물의 창은 창밖에 있는 불상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인가요?

해설사 : 맞아요. 이런 기법을 적용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불상의 높이가 18미터인데, 이만한 불상을 모시려면 규모가 매우 큰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창을 뚫어 놓으면 그런 수고를 덜 수 있어요.

- ① 해설사는 질문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의문점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② 해설사는 학생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은 해설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④ 학생은 해설사의 설명에 대한 의문점을 추가로 질문하고 있다.
- ⑤ 학생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 꿈은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죠. (‘약품 설명서’를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며) 보시다시피 흔히 볼 수 있는 약품 설명서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보세요. 약품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품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농구를 하다 넘어져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약을 먹었는데, 다음날 얼굴이 통통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 체질이 그 약과 맞지 않아 부작용이 생긴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좋은 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맞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효능이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저는 이런 저의 꿈을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갑자기 집안 사정이 나빠져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레밍은 실수로 박테리아 배양 접시의 뚜껑을 덮지 않고 실험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오니 그 배양 접시에 푸른곰팡이가 자라고 있었고 푸른곰팡이 주위에는 박테리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페니실린을 만들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곰팡이의 포자는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는) 바로 깨진 창문으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플레밍은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했지만, 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깨진 창문 때문에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제 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플레밍처럼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청중을 돌아보며) 여러분 중 혹시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플레밍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번 발표 과제가 자기 진로를 소개하는 말하기였지? 그렇다면 ‘좋은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 꿈에 대해 발표해야겠어. 시작 부분에서는 ㉠ 청중이 발표에 흥미를 갖도록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 내가 이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나의 경험을 통해 소개해야겠어. 그리고 이 꿈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돌리게 한 플레밍 이야기를 해야겠어. ㉢ 플레밍의 실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실험의 중요성을 학문적 관점에서 강조해야겠어. 그런 뒤에는 ㉣ 플레밍의 일화가 나에게 미친 영향을 밝혀야겠어. ㉤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 관용구를 사용하며 정리해야겠어.

- ㉠ ㉡ ㉢ ㉣ ㉤ ㉥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자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의 신뢰성을 높였다.
- ② 발표자는 질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 ③ 발표자는 설명 대상을 분류하여 청중이 능동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 ④ 발표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여 청중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 ⑤ 발표자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 글의 제재: 청소년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것.
- 글의 분량: 800자 내외
- 글의 목적: 설득적 글쓰기
- 글의 주제: 제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 글의 독자: 학생, 학부모, 교사
- 글이 실릴 매체: 교지

[작문 계획]

청소년의 언어생활이라고 하니까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어서 무엇에 대해 쓸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문득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주변에서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800자 내외로 써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속어와 은어 중 하나만 다루기로 했다. 부정적 속성이 강한 비속어에 대해 쓰는 편이 교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 비속어에 대한 글을 쓰기로 결정했다. 글의 주제는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을 줄이자.’로 하고 글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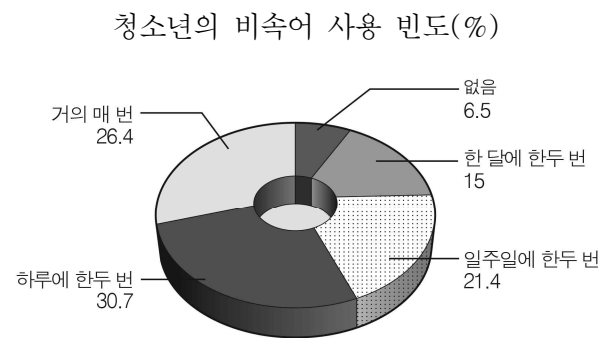
[A] ‘처음’에는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밝힌다. ‘중간 1’에는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중간 2’에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끝’에는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6. ‘작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작문 계획’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설문 조사를 통해 글의 세부 내용을 생성하려 하였다.
- ② 글이 실릴 다양한 매체를 고려하여 표현 방법을 모색하였다.
- ③ 예상 독자와 글의 분량을 고려하여 글의 제재를 선택하였다.
- ④ 다양한 관점을 소개할 수 있는 글의 전개 방법을 선정하였다.
- ⑤ 제재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글의 주제를 확정하였다.

7. [A]를 바탕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의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통계 자료



(나) 설문 조사 결과

1.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이유(%)

습관이 되어	남들이 사용하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근감을 표현하려고	기타
25.7	18.2	17.0	16.7	22.4

2. 청소년의 비속어 습득 경로(%)

친구	인터넷	영화	텔레비전	기타
47.7	26.4	10.2	4.3	11.4

(다) 전문가의 의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비속어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비속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속어의 사용 정도를 자각하게 하여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비속어 습득 경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처음’에는 (가)를 활용하여, 대다수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② ‘중간 1’에는 (나) - 1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매체 환경의 변화라는 사회적 요인 때문임을 제시한다.
- ③ ‘중간 1’에는 (나) - 2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주로 친구를 통해 비속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시한다.
- ④ ‘중간 2’에는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통해 비속어 사용에 대한 자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⑤ ‘끝’에는 (나) - 2와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 영상 매체 등을 통해 비속어를 습득하는 것에 대해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함을 촉구한다.

8. 작문 상황을 바꾸어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자료]를 읽고, 작성할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비빔밥은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고추장과 참기름 등을 밥과 함께 비빈 것으로, 맛이 좋아 예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비빔밥은 한 번에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꽃밥으로 불릴 정도로 모양도 아름답다. 비빔밥은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 ○○ 백과사전 —

< 조 건 >

-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것.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글의 목적을 달리할 것.

- ① 비빔밥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는 음식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지역감정이 편협한 생각에 의한 것임을 알리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② 비빔밥이 모양이 아름답고 영양가도 있는 음식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외모만큼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③ 비빔밥이 다양한 영양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친구들에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④ 비빔밥이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맛이 좋다는 점을 활용하면, 다문화 사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닌 사람에게 인식을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⑤ 비빔밥이 외국인도 사랑하는 세계적 음식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한류(韓流)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알려 주는 발표를 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에서 흥미 있는 소재를 찾아 글을 써 보았다.

[학생의 글]

저는 얼마 전 잡지에서 ‘업사이클링(upcycling)’에 대한 기사를 읽고 흥미를 느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을 활용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자기만의 개성도 ㉠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보통 재활용한다고 하면 수명이 다한 제품을 본래의 제품보다 낮은 급으로 활용하는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업사이클링은 뭘까요? 업사이클링은 수명이 다한 물건을 원래의 용도가 아닌 새로운 용도로 ㉡ 재탄생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이처럼 쓰던 제품을 재활용하면서도 소재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은 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제가 본 자료에는 비닐이나 옷감 또는 고무호스로 독특하게 디자인해 새롭게 만든 가방이나 지갑 등이 있었습니다. ㉢ 현 가방이나 스웨터를 활용하여 허리띠나 이불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 쓰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발하고 독특하게 디자인한 업사이클링 패션 소품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저는 그 제품들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놀랐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와 같이 업사이클링을 활용하면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 그런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다음은 윗글을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학생의 글’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업사이클링을 접하게 된 계기를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
- 다른 용어와 비교하며 업사이클링을 설명해야겠어. ㉡
-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야겠어. ㉢
- 구체적 사례를 들어 업사이클링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어야겠어. ㉣
- 업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 ~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발휘’로 바꿔야겠어.
- ② ㉡: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재탄생시켜’로 고쳐야겠어.
- ③ ㉢: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겠어.
-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낫겠어.
- ⑤ ㉤: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11.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동화 현상은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이다. 동화에는 ‘ㄴ, ㄹ’의 앞에서 ‘ㄱ, ㄷ, ㅂ’이 ‘ㅇ, ㄴ, ㄹ’으로 변하는 비음화, ‘ㄷ’의 앞뒤에서 ‘ㄴ’이 ‘ㄷ’로 변하는 유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있다.

- ① ‘뱀물’은 [뱀물]로 발음해야 한다.
- ② ‘밭이’는 [바치]로 발음해야 한다.
- ③ ‘난리’는 [난니]로 발음해야 한다.
- ④ ‘땀받이’는 [땀바지]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먹는다’는 [멍는다]로 발음해야 한다.

12.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보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보 기 >

고르다² ㉠

1. (...을)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다.

2. (...을)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강모는 거문고 줄을 골라 다시 한 곡조를 뜯었다.

고르다³ ㉢

1.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 이 지역은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린다.

2.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 생각보다 날씨가 고르다.

- ① 고르다²와 고르다³은 동음이의어이다.
- ② 고르다²와 고르다³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③ 고르다²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④ 고르다²의 1의 용례로 ‘그는 목소리를 고르고 있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고르다³은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사어의 종류와 예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사어에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가 있다. 성분 부사어는 용언, 체언, 관형어,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준다.

- ①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 장미꽃이 정말 예쁘다.
- ②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어] - 이상하게 오늘은 운이 좋다.
- ③ [부사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 그가 매우 높이 뛰어올랐다.
- ④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 내 차가 아주 새 차가 되었다.
- 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 다행히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다.

14.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의 예를 <보기 2>에서 고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1 >

발화(發話)는 발화자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발화자가 상대방(청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명령문을 사용하여 발화자의 의도를 직접 드러낸다. 하지만 담화 상황에 따라 발화자가 요구하는 바를 평서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의문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보 기 2 >

- 모임에서 만나 둘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
남자 A: ㉠ 저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남자 B: 그 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
의사: ㉡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환자: 전부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 개학 후 교사가 학생들을 처음 대면한 상황
교사: ㉢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학생: 선생님, 저희도 그래요.
- 귀가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상황
아들: ㉣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엄마: 그래, 금방 차려 줄게.
- 여행객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는 상황
여행객 A: ㉤ 이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행객 B: 그래요. 정말 아름답네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다음은 선어말 어미 ‘-겠-’에 대해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이다.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구름이 낀 걸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
 ㄴ. 서울에는 지금쯤 눈이 내리겠다.
 ㄷ. 설악산에는 벌써 단풍이 들었겠다.
 ㄹ. 그 목표를 (제가/형이*) 꼭 이루겠습니다.
 ㅁ. 그 정도는 어린애도 (알겠다./할 수 있겠다.)

*는 비문 표시임.

- ① ㄱ을 통해 ‘-겠-’이 미래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ㄴ을 통해 ‘-겠-’이 현재의 사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ㄷ을 통해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었-’과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ㄹ을 통해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ㅁ을 통해 ‘-겠-’이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은 빛으로 빛는 예술이다. 따라서 사진가는 자신의 의도 곧, 주제를 살리기 위해 빛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빛을 잘 다룬다는 것은 피사체에 비친 빛의 특성을 알고 그 빛을 잘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이다. 사진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다루어야 하는 빛은 그 방향에 따라 정면광, 측면광, 후면광, 하향광, 상향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면광은 피사체가 정면에서 받는 빛으로 사진가가 가장 편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 빛은 컬러 사진의 색 재현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모든 형태가 자연스럽게 재현되어 일상적 시각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입체감이 살지 않는 단점은 있으나 정면에서 바라본 피사체의 모든 면을 세세하게 살려주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사진에 많이 이용된다. 측면광은 피사체의 좌우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물체의 작은 굴곡도 놓치지 않고 그림자를 만들어 주어 입체감과 질감을 효과적으로 묘사해 준다. 배경과 피사체가 한데 붙은 것처럼 보여 피사체가 부각되지 않을 때, 측면광은 효과적으로 이들을 분리시켜 피사체를 부각시킬 수 있다. 후면광은 피사체의 뒤쪽에 빛이 있어 배경은 밝으나 정작 피사체는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여 피사체의 묘사에 실패할 우려가 높다. 자칫하면 렌즈에 빛이 직접 닿아 사진이 뿌옇게 나오거나 형태가 분명하지 않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효과를 역이용하여 독특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사진을 연출하는 경우도 있다.

정면광, 측면광, 후면광이 수평 방향의 빛이라면 하향광과 상향광은 이와 다른 방향의 빛이다. ㉠ 하향광은 피사체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빛으로 태양이 위에서 비추는 것처럼 대체로 우리들 눈에 자연스러운 빛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빛이 피사체 바로 위에서 내리쬘게 되면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든다. 하지만 빛을 받은 밝은 피사체와 그

것이 만들어 낸 어두운 그림자의 선명한 대비가 오히려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 상향광은 피사체의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 비추는 빛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흔히 인공 빛에 의한 조명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자연스럽고 낯선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비감이나 공포감을 주기도 한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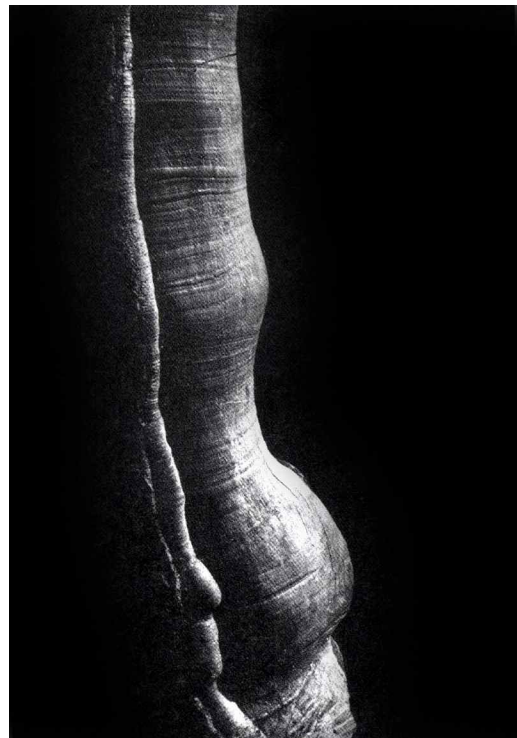
- ① 빛의 기능을 통해 사진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다.
 ② 빛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진의 목적을 탐구하고 있다.
 ③ 사진 촬영 시 빛 이용 방법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④ 빛 이용의 한계를 제시하며 사진의 특성을 탐색하고 있다.
 ⑤ 사진에 활용되는 빛을 분류하고 그 특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다큐멘터리 사진에 주로 활용된다.
 ② ㉠은 선명한 대비로 인한 효과를 줄 수도 있다.
 ③ ㉡은 자연 상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④ ㉡은 신비감이나 공포감을 주기도 한다.
 ⑤ ㉡은 조명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사진은 한정식의 [나무]로, 나무를 배경과 분리하여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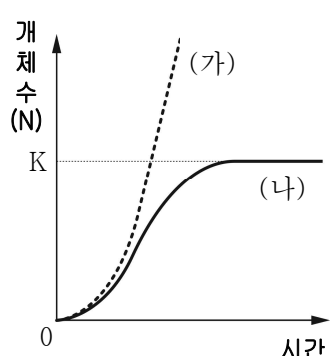
- ① 색을 재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빛을 활용했군.
 ② 렌즈에 직접 닿은 빛의 효과를 미학적으로 활용했군.
 ③ 물체의 모든 면을 세세하게 살려주는 빛을 활용했군.
 ④ 피사체를 배경에 비해 어둡게 보이게 하는 빛을 활용했군.
 ⑤ 작은 굴곡도 놓치지 않고 질감을 잘 묘사해 주는 빛을 활용했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태계에서 개체군이란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집단을 말한다. 생태학자들은 이러한 개체군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과 ㉡ 로지스틱(logistic) 성장 모델을 활용한다.

먼저 먹이, 번식지, 포식자 등과 같은 아무런 환경적인 제한 요인이 없는 실험 환경에서 한번 발생한 박테리아가 매 20분마다 두 배로 지속적으로 분열해서 증식한다고 가정하자. 이 박테리아는 36시간 후에는 전 지구를 30cm의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수로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이상적인 환경이라면, 개체군의 성장률(G)은 그 개체군이 갖고 있는 선천적 번식능력을 의미하는 상수 값인 ‘내재성 증가율(r)’과 그 개체군의 ‘개체수(N)’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G=rN$ 이라는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률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만큼 개체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개체군이 일정한 세대기간*이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림>의 (가)와 같은 곡선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 자연계에서 개체군이 성장 초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림>의 (가)처럼 성장할 수는 없다. 이를 고려한 것을 로지스틱(logistic) 성장 모델이라고 하며, 이는 <그림>의 (나)와 같은 곡선으로 그려진다. 이 모



<그림>

델은 제한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개체군이 최대 성장할 수 있는 개체수인 ‘환경수용력(K)’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수용력에서 개체수를 뺀 값을 환경수용력으로 나눈 값인 $\frac{(K-N)}{K}$ 을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 방정식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G = rN \frac{(K-N)}{K}$$

성장 초기에 개체군의 개체수는 환경수용력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frac{(K-N)}{K}$ 은 거의 1과 같게 된다. 이처럼 개체군의 성장 초기의 성장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에 가깝게 나타난다. 이후 개체군이 커지고 개체수가 환경수용력에 가까워질수록 $\frac{(K-N)}{K}$ 은 0에 가까워져서 개체군의 성장은 둔화된다. 이론적으로 어떤 개체군의 개체수가 환경수용력의 1/2일 때 성장률은 최대가 되고, 개체수와 환경수용력이 같아지면 개체군의 성장률은 0이 된다. 그러면 그 개체군은 <그림>의 (나)처럼 개체군의 개체수에 큰 변동이 없는 안정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세대기간: 한 개체군이 증식하는 일정한 시간 간격.

19.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따르면 개체군의 세대기간이 거듭될수록 개체군의 성장률은 커지게 된다.
- ② ㉠에 따르면 개체군이 성장하여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개체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 ③ ㉡에 따르면 개체군의 개체수가 환경수용력의 $\frac{1}{2}$ 을 넘으면 개체군의 성장률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 ④ ㉡에 따르면 개체군의 개체수와 환경수용력이 같아지면 개체군은 안정 상태에 이르게 된다.
- ⑤ ㉡에 따르면 개체군 성장 초기의 개체수가 적을수록 개체군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2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계에서는 개체군의 성장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 ② 자연계에서는 개체군의 환경수용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 ③ 자연계에서는 개체군의 선천적 번식 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 ④ 자연계에서는 제한 요인이 개체군의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 ⑤ 자연계에서는 이상적인 환경보다 개체수가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2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알래스카 연안 세인트폴섬에는 ㉣ 물개의 개체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물개는 수컷 물개 한 마리당 암컷 30~50마리로 구성된 번식 집단으로 생활하는데, 인간의 사냥 등으로 인해 물개의 개체수가 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1925년부터 물개 사냥이 규제되기 시작하자 물개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0년 뒤 1935년에는 물개의 수가 한계에 이르러 개체군 내의 수컷이 약 1만 마리에 해당하는 개체군의 크기로 안정되었다.

- ① ㉣는 1925년에 최대의 개체군을 형성했겠군.
- ② ㉣는 1926년경에 환경수용력이 작아졌겠군.
- ③ ㉣는 1935년경에 성장률이 0에 가까웠겠군.
- ④ ㉣의 내재성 증가율은 0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의 개체군의 최대 개체수는 1만 마리라 할 수 있겠군.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리학의 주장에 의하면 만물에 부여된 순수한 원리는 ‘이(理)’이고, 이(理)가 현실 세계에 구현되게 하는 매체는 ‘기(氣)’이다. 세상의 만물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理)가 구현되는 정도는 기(氣)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의 이(理)가 바로 세상 만물의 본성(本性), 즉 ‘성(性)’이다. 17, 18세기 조선의 성리학계에서는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 즉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은가 다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던 호론(湖論)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던 낙론(洛論)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 하는데, 이 논쟁은 조선이 중국보다 심화된 성리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 호론 계열의 학자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이(理)는 동일하지만 사람만이 정밀하고 빼어난 기(氣)를 가진 덕분에 완전한 이(理)를 갖췄고, 동물은 거칠고 흐린 기(氣)를 가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理)를 갖췄다고 보았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그들이 기(氣)와 결합된 이후의 이(理)를 성(性)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만물에 부여된 기(氣)가 개체마다 다르므로 성(性)은 사람과 동물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반면에 ㉡ 낙론 계열의 학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기(氣)에 의해 발생하고, 이(理)는 기(氣)와 결합되기 이전이든 이후든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기(氣)가 다르다고 해서 기(氣)와 결합한 이(理)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그들은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17, 18세기에 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호론 계열의 학자들은 청나라 문물의 영향을 덜 받는 충청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청나라 사람을 오랑캐이자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보고 그들의 문물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대신 우리가 가진 순수한 모습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낙론 계열 학자들은 서울 지역에 기반을 두어 청나라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들은 청나라 문물이 결코 야만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그들은 청나라 사람도 조선 사람이나 명나라 사람과 같은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2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理)’가 구현되는 정도는 ‘기(氣)’에 따라 정해진다.
- ② ‘기(氣)’는 ‘이(理)’가 현실 세계에 구현되게 하는 매체이다.
- ③ 호론과 낙론은 청나라 문물에 대해서 각기 다른 대응 자세를 보였다.
- ④ 호락논쟁은 논쟁 참여자의 지역적 기반 차이를 반영하며 전개되었다.
- ⑤ 호락논쟁 덕분에 조선의 학자는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3. <보기>에 대해 ㉠과 ㉡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물에 비친다고 하자. 고요한 물에 비친 달과 흐르는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은 다르다. 동일한 달이 물에 비친 것인데, 하나는 완전하게 둥근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찌그러진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동일하다.

(나) 호랑이가 자식을 아끼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이(理)의 모든 덕목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과 달리, 이(理)의 덕목 중 인(仁)의 덕목만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벌이 여왕벌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이(理)의 덕목 중 의(義)의 덕목만 실현하고 있다.

- ① ㉠: (가)에서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물에 비친 달’은 각각 사람과 동물의 기(氣)를 나타내는군.
- ② ㉠: (가)의 달의 ‘둥근 모습’과 ‘찌그러진 듯한 모습’은 기(氣)와 결합하기 이전의 이(理)를 나타내는군.
- ③ ㉡: (가)에서 ‘물’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기(氣)도 이(理)를 변화시킬 수 없군.
- ④ ㉡: (나)에서 ‘호랑이’와 ‘벌’이 ‘이(理)의 덕목’ 중 하나만 실현한 것은 불완전한 이(理) 때문이로군.
- ⑤ ㉡: (나)에서 ‘호랑이’와 ‘벌’이 실현한 ‘이(理)의 덕목’이 다른 것은 이들이 지닌 ‘이(理)’가 다르기 때문이로군.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한 재화나 서비스 등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 양상에 따라 시장 구조를 크게 독점시장, 과점시장, 경쟁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수록 독점시장에 가까워지고, 다수의 기업이 공급을 나누어 가질수록 경쟁시장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시장 구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집중률’이다.

시장집중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점유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시장점유율이란 시장 안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 비중을 의미하는데, 생산량,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Y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생산량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Y기업의 생산량/시장 내 모든 기업의 생산량의 총합) × 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시장 내 한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 주는 수치라면, ㉣ 시장집중률은 시장 내 일정 수의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주는 수치, 즉 일정 수의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몇 개의 상위 기업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3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을, 미국에서는 상위 4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을 시장집중률로 ㉤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시장집중률을 통해 시장 구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시장집중률이 높으면 그 시장은 공급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독점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집중률이 낮으면 공급이 다수의 기업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경쟁시장으로 구분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산업에서의 시장집중률이 80 % 이상이면 독점시장, 60 % 이상 80 % 미만이면 과점시장, 60 % 미만이면 경쟁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장집중률을 측정하는 ㉥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며 이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도 달라진다. 어느 시장의 시장집중률을 ‘생산량’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A, B, C 기업이 상위 3대 기업이고 시장집중률이 80 %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는 D, E, F 기업이 상위 3대 기업이 되고 시장집중률이 60 %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집중률은 시장 구조를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이며, 이를 통해 시장 내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 파악해 볼 수 있다.

24.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구조의 변천사
- ② 시장집중률의 개념과 의의
- ③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의 비교
- ④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의 특성
- ⑤ 시장집중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우리나라 신발 시장의 가상 시장점유율(%)

구분 측정 기준	㉠ 기업	㉡ 기업	㉢ 기업	㉣ 기업	㉤ 기업	합계
생산량	40	10	20	25	5	100
매출액	30	10	20	25	15	100

* 시장 구조의 구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준을 따름.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내의 기업은 5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 ① 측정 기준을 바꾸더라도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변하지 않는다.
- ②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장은 과점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나) 기업과 (마) 기업이 합병하여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높아지겠다.
- ④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률이 10 % 상승하면 이 시장은 과점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변하겠다.
- 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 기업과 (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금의 두 배가 된다면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낮아지겠다.

2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의 불확실성이 보완된다.
- ② ㉠은 ㉣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③ ㉠은 ㉣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 ④ ㉠은 ㉣의 상위 개념이 된다.
- ⑤ ㉠은 ㉣을 합산한 결과이다.

27. ㉠ ~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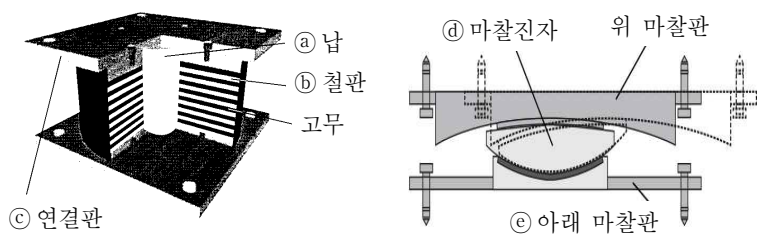
- ① ㉠ :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② ㉡ :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
- ③ ㉢ : 작품, 의견, 제도 따위를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 씀.
- ④ ㉣ :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
- ⑤ ㉤ :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자체의 흔들림을 갖고 있다. 이를 고유 진동이라고 하는데 물체가 한 방향으로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유 진동 주기라고 한다. 어떤 물체가 그 물체와 같거나 유사한 고유 진동 주기를 만나면 진폭이 갑자기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진이라 한다. 지진은 보통 단주기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건물은 고유 진동 주기가 지진과의 진동 주기와 유사한 단주기인 경우가 많아, 지진이 일어나면 공진에 의해 큰 피해를 입는다.

면진 장치는 이러한 공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로, 건물을 지지하면서 지진 발생 시 건물을 지반으로부터 격리시켜 준다. 지진이 발생하면 면진 장치는 건물을 움직여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를 장주기로 바꾸어서 공진을 피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면진 장치는 주로 건물의 하중과 폭에 따라 설치한다. 이 장치는 지반과 건물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층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널리 사용되는 면진 장치로는 적층고무 받침, 납삽입 적층고무 받침, 마찰진자 지진격리 받침 등이 있다.

적층고무 받침은 고무와 철판을 교대로 겹겹이 쌓아 놓은 것에 위아래로 연결판이 붙어 있는 형태이다. 연결판은 건물과 면진 장치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고무 사이의 철판은 수직의 하중을 지탱하며, 고무는 건물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진과의 진동을 감쇠*시킨다. 그러나 이 장치는 다른 면진 장치들에 비해 지진과의 진동을 감쇠시키는 기능이 떨어지므로 지진이 일어날 때 위의 세 가지 면진 장치 중에서 상대적으로 건물의 손상이 가장 크다.



[납삽입 적층고무 받침] [마찰진자 지진격리 받침]

<그림>

납삽입 적층고무 받침은 적층고무 받침 가운데에 원형 구멍을 뚫고 납을 끼운 형태로 되어 있다. 납은 강도가 낮아 변형될 수 있으므로, 지진이 발생하면 납이 변형되어 지진과의 진동을 감쇠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찰진자 지진격리 받침에 비해 감쇠력은 낮은 편이다.

마찰진자 지진격리 받침은 두 마찰판 사이에 곡면 형태의 마찰진자를 설치한 것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마찰진자가 마찰판에 미끄러지면서 지진과의 운동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변환된다. 진동 후, 아래 마찰판의 곡면으로 인해 건물은 원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건물은 수평 방향으로 어느 정도 흔들리다가 정지하게 된다. 이 장치는 마찰판의 미끄럼 정도를 제어하여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를 조절할 수 있다.

* 감쇠: 힘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줄어 약해짐.

28.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면진 장치는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 ② 널리 사용되는 면진 장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③ 면진 장치는 건물의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가?
- ④ 공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 ⑤ 면진 장치의 기능은 무엇인가?

29. 윗글에 제시된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지진과의 진동을 감쇠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 건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 ③ ㉢: 건물과 면진 장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④ ㉣: 지진과의 마찰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⑤ ㉤: 진동 후에 건물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30.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적층고무 받침은 다른 면진 장치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타 장치에 비해 면진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A 회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고무보다 성능이 뛰어난 고무를 재질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개선된 장치는 기존의 고무를 사용한 적층고무 받침보다 [㉦]

- ① 장치의 감쇠력이 높다.
- ② 장치의 마찰력이 높다.
- ③ 장치의 복원력이 낮다.
- ④ 장치 마찰판의 미끄럼 정도가 높다.
- ⑤ 장치 연결판 곡면의 굽은 정도가 낮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놀인다.

㉠ 먼 길에 올 제
호울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길이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비판적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명령형의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은 현재의 삶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가 상상한 공간을, ㉡은 현실의 공간을 나타낸다.
- ③ ㉠은 화자가 체험한 것을, ㉡은 화자가 지향하는 것을 나타낸다.
- ④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을 나타낸다.
- ⑤ ㉠과 ㉡ 모두 화자가 동반자를 만나 함께 정착하는 삶을 나타낸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그들을 만들어 가로수로 널리 쓰이는 ‘플라타너스’의 속성에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꿈을 지닌 플라타너스는 화자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고독한 화자에게 자신이 지닌 사랑과 배려의 덕성을 베풀어주고 있다. 그런 플라타너스를 통해 화자는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품게 된다.

- ① 1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꿈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군.
- ② 2연에서 화자는 타인을 배려하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나타내고 있군.
- ③ 3연에서 화자는 고독할 때 자신에게 위안이 되었던 ‘플라타너스’를 떠올리고 있군.
- ④ 4연에서 화자는 자신과 ‘플라타너스’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군.
- ⑤ 5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이리로 옮겨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아내와 나는 의논한 결과, 어쩌면 주인택에서 타협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아내가 한 달 방세를 가지고 가서 다시 ㉠ 사정을 해보기로 했다. 그래, 가지고 갈 방세의 금액이 문제였는데, 이만 원, 삼만 원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사만 원으로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오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 방세 오만 원씩을 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들리는 말에 다다미 한 장에 만 원씩이란 말도 있고, 정하고 있던 방세를 올릴 참으로 방을 비워 달라는 수가 비밀비재란 말이 있는데다, 더욱이 우리는 변호사 영감의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을 지어서 노상에나 여관으로 쫓겨 나가는 날이면 큰일이라, 이런 방세나마 내고 타협을 얻은 후, 마음 놓고 나가 열심히 장사를 해 살아나갈 변통을 하는 게 나을 성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벌써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은 옷가지를 갖고 국제 시장으로 나가고, 큰 애 둘은 서면에 가서 미군 부대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오만 원도 아내의 장사 돈에서 떼낸 돈이었다.

안방에 들어갔다 좀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려 있지 않다. 그러면 됐나 보다 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 달란다는 것이다. 영감과 큰아들은 다다미 여덟 장 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는 작은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말은 못 하겠던지, 장발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수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달라더라는 것이다. [A]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 방 하나만 구해 주면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티하겠다는 것도 못하고 있단다는 것이다. 나는 간이 서늘해 옴을 느꼈다. 금 손목시계라니 문제가 좀 큰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느냐니까, 좌우간 딸들 책이라도 한 권 사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고 한다. 이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이 돈은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내가 피난지에서 방을 구하지 못해 간청하며 버티자 집주인은 전기까지 끊으며 압박을 한다. 나의 가족은 낮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저녁에 모여 집으로 돌아간다.

부성교에 이르러 우리는 오른편으로 꺾인다. 개천 독길은 어둡다. 하늘에는 별이 충충한데 어둡다.

남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 노래 불러요, 한다. 내가, 노래는 무슨 노래, 하려는데 엄마 곁에 붙어서 가던 선아가, 노래라는 말에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부르기 시작한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나는 이 선아가 변호사 댁에서는 꾸지람이 무서워 어린 동생에게 노래는커녕 소리 한번 못 내게 주의시키던 일을 생각하고, 노래를 그만두라는 말을 못한다. 남아, 동아도 따라 부른다.

이 노래가 끝나기가 바쁘게 남아가, 찌리링 찌리링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찌리리리링, 하며 자전거를 탄 시늉을

하고 어둠 속을 달린다.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졸던 애가 오늘은 웬일일까. 오늘 장사에 수지가 맞았다는 것인가. 저기 가는 저 영감 꼬부랑 영감,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번에는 자전거가 이리로 달려와 아빠 새를 돌아 나간다. 아빠 되는 이 영감은 자전거에 치지 않기 위해 비켜나야만 했다.

등에서 진아가 잠을 깼다. 깨어나서는 누나가 다시 부르기 시작한,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를 같이 불러 본다. 선아는 울동까지 섞어 가며 한다. 흡사 어둠 속을 날아가는 나비와도 같이.

누나의 노래가 끝나자, 그제는 온전히 정신이 든 듯 진아가, 산토끼 토끼야를 꺼낸다. 이놈은 또 토끼 뛰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는데, 내 등에서는 맛이 안 나는지 어깨로 기어 올라가 무릎을 타고서 야단이다. 짱충짱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밤토실 주워서 올 테야. 진아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그냥 토끼 뛰는 시늉을 한다.

나는 여섯 살잡이 진아의 엉덩이 밑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생각한다. 토끼라고 하면 이 아빠도 엄마도 토끼띠다. 그러나 이 아빠 토끼는 짱충짱충 산고개를 넘어가 토실밤을 주워 오기는커녕 이렇게 어두운 개천 독에서 요 맛 무게 요 맛 움직임 밑에서도 비틀거리며 채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 곡예사라는 말을 떠올렸다. 옳아, 지금 나는 진아를 어깨에 올려놓고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진아도 내 어깨 위에서 곡예를 하고 있고, 선아는 나비의 곡예를 했다. 남아는 자전거 곡예를 했다. 이 남아가 이제 몇 센트의 군표*를 위해 그 꼬마와 같은 지랄을 해야 하는 것도 일종의 슬픈 곡예인 것이다. 그리고 동아의 폴리즈 썰투미도 그런 곡예요, 이들이 가슴이나 잔등에서 또는 허리춤에서 담배 보루며 껌곽을 재빨리 꺼내고 넣는 것도 훌륭한 곡예의 하나인 것이다.

— 황순원, 「곡예사」 —

*군표: 전지(戰地)에서 군대의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긴급 통화.

34. [A]의 주된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 ③ 환상적인 배경을 통해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다른 인물에게서 들은 것을 독자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35. ㉠과 ㉡을 연관 지어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듣고 ‘나’는 ㉡과 같은 자유로운 예술가의 삶을 동경한다.
- ② ㉠을 듣고 ‘나’는 자신의 가족을 ㉡에 빗대어 서글픈 감정을 드러낸다.
- ③ ㉠은 ‘나’에게 동심을 불러일으켜 ㉡으로 활동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 ④ ㉠은 ㉡처럼 살아가며 순수성을 잃어버린 ‘나’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⑤ ㉠에 담긴 ‘나’에 대한 아이들의 불신은 ㉡과 같은 삶을 사는 ‘나’에게 가장의 역할을 떠올리게 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곡예사」는 피난지에서서 ‘방’을 확보해야 하는 주인공과,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일을 추구하는 자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삶의 절박함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생존에서 중요한 공간인 ‘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인간성을 비판하고 연대감이 상실되어 가는 사회 현실을 보여 준다.

- ① 주인공 부인이 ‘이 방’과 관련하여 ‘금 손목시계’를 언급하는 장면은 피폐해진 인간성을 드러내는군.
- ② ‘나’가 ‘노상’으로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나’가 무리하게 방세를 ‘오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집주인과의 대립 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 주는군.
- ④ ‘나’의 ‘아내’가 ‘이 방’의 일부를 주인공 ‘할머니’에게 잘 자리로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은 삶의 절박함을 보여 주는군.
- ⑤ ‘다다미 여덟 장 방’과 ‘큰 온돌방’에 살면서도 ‘이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행태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37. ㉠을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애걸복걸(哀乞伏乞)
-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 ④ 건강부회(牽強附會)
- ⑤ 갑론을박(甲論乙駁)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는 무엇 하는 자이고?”
 하니, 그 유생이 공손히 절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저는 용왕의 아들 이목(李牧)입니다.”
 치원이 또 묻기를,
 “너는 무엇 하려고 여기 왔느냐?”
 하니, 대답하였다.
 “마침 오늘 천하의 문장인 선생님께서 이곳에 도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 배우고자 하여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목이 다시 말하길,
 “무릇 제가 사는 땅은 어르신네께서 사시는 땅과는 아주 달라 공자(孔子)의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고자 하여도 말미암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A] 늘 자탄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 땅에 잘못 태어나 공자의 도를 들을 수 없는가.’ 하였는데, 우연히 천하의 문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이 저로 하여금 성인의 도를 듣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거듭 경의를 표하여 용궁으로 맞아 들었다.

(중략)

위이도(魏耳島)에 이르니 마침 가뭄이 극심하여 만물이 모두 붉게 시들어 있었다. ㉠그 섬 주민들은 최문장이 온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와 맞이하며 애걸하였다.

“이 섬의 주민들은 가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모두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죽지 않은 자들 또한 대부분 떠나거나 흩어져 이 섬은 거의 비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천하의 대현(大賢)께서 이미 이곳에 오셨으니 어찌 이 궁한 목숨을 이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말하길,
 “듣사오니 현인께서 진실로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반드시 응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바라옵건대 명공께서는 특별히 상림(桑林)*의 뜻을 생각하시어 글로써 비를 기원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하니, 치원이 그 정성을 가련하게 여겨 이목을 돌아보고 말했다.
 “㉢자네의 재능이면 가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네. 용기를 내 비를 뿌려주어 이 섬의 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해주게.”

이목이 그 명령을 좇아 마침내 산간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으니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비가 퍼붓듯이 내려 내와 도랑이 넘쳐흐르자 섬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잠시 후 이목이 산간에서 나와 치원의 곁에 앉았다.

조금 있으니 운무(雲霧)가 다시 합하고 우레 소리가 울리더니 비가 처음 내렸던 것처럼 퍼부었다. 얼마 후에 푸른 옷을 입은 승(僧)이 붉은 검을 가지고 내려와 큰 소리로 이목을 부르며 말하길,

“내가 하늘의 명령을 받고 너를 목 베어 죽이러 왔으니 급히 나와 벌을 받아라.”

하고, 검을 휘두르면서 나아왔다. 이목이 크게 두려워하며 치원에게 말했다.

“제가 선생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마음대로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저의 방자함을 미워하여 마음대로 비 내린 죄를 받게 하고

자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치원이 말하길,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잠시만 몸을 숨기면 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네.”
 하니, 이목이 교룡(蛟龍)으로 변하여 치원이 앉은 자리 밑에 숨었다.
 천승(天僧)이 치원에게 말하길,
 “천제(天帝)께서 또한 나를 보낸 것은 이목을 죽여 그 죄를 응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족하(足下)*께서 숨기시고 내놓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치원이 말했다.
 “이목이 무슨 죄과(罪過)를 저질렀기에 천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천승이 말하길,
 [B] “이 섬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으며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어른을 능멸하는 등 풍속이 이처럼 크게 악하기 때문에 천제께서 일부러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목이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비를 내렸기 때문에 하늘이 이를 미워하여 나를 보내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하니, 치원이 말하였다.
 “내가 이 섬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목에게 비를 내리도록 명한 것이오. ㉔ 죄는 나에게 있지 이목에게 있지 않소. 죽이고자 한다면 나를 죽이는 것이 옳겠소.”
 천승이 말하길,
 “천제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㉔ 최치원이 천상에 있을 때 마침 조그마한 죄를 얻어 인간 세계에 떨어진 것일 뿐이지 원래 인간 세상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이목을 목 베려 할 때 만약 최치원이 간절하게 말리면 삼가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올린 후 하늘로 되돌아갔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 상림 : 가뭄이 들자 탕왕(湯王)이 기우제를 지냈다는 지역 이름.

* 족하 : 같은 또래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말.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치원은 천제가 천명을 어긴 자신을 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② 이목은 하늘의 명령보다 치원의 명령을 더 중하게 여겼다.
- ③ 천승은 교룡으로 변신하여 숨은 이목을 알아보지 못했다.
- ④ 천제는 이목보다는 치원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했다.
- ⑤ 위이도 주민들은 대부분 가뭄에도 고향을 지켰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최고운전」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최치원이 곤경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하여 영웅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최치원의 영웅적 면모는 신이한 공간인 수궁계나 천상계에 속한 인물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 ① ㉠ : 치원이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 : 치원의 비범한 능력이 학문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 : 치원은 수궁계의 인물에게 도움을 받아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하려 하는군.
- ④ ㉣ : 치원은 천상계의 인물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하는군.
- ⑤ ㉤ : 치원은 천상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군.

40. [A]와 [B]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화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A]와 [B] 모두 화자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여 상대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한편으로는 상대를 위협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예는 저 ㉠ **시내**야
므슴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좇아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피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았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기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 —

42. <보기>는 윗글의 창작 배경과 관련된 글이다. 이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윤선도는 권신 이이첨의 횡포에 대해 탄핵 상소를 올린 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윤선도의 아버지마저 관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사실 윤선도의 부모는 이이첨의 세도로 보아 화가 미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윤선도가 상소를 올리는 것을 만류하였다. 하지만 윤선도는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불의를 외면한다면 불충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상소를 올린다. 그로 인해 부모의 곁을 떠나 유배를 가게 된다.

- ① <제1수>의 ‘해울 일’이란 불의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겠군.
- ② <제2수>의 ‘아무’는 화자와 그 가족에게 화가 미치게 한 사람들이겠군.
- ③ <제3수>의 ‘임 향한 내 뜻’은 아버지의 관직 복귀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겠군.
- ④ <제4수>의 ‘아버이 그린 뜻’은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겠군.
- ⑤ <제5수>의 ‘임금을 잊으면’은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상소를 올리지 않는 것이 해당될 수 있겠군.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
- ②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심화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4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다.
- ② ㉠과 ㉡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③ ㉠과 ㉡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회상의 매개체이다.
- ④ ㉠은 화자를, ㉡은 ‘아버이’를 비유하는 말이다.
- ⑤ ㉠은 공간의 이동을, ㉡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십분십사일분어(十分心思一分語)란, 품은 사랑은 가슴이 벽 차건만 다 말 못하는 정경(情景)을 가리킴인 듯하다.

이렇듯 다 말 못하는 사정은 남녀 간 정한사(情恨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표현이 모두 그렇지 않은가 느껴진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뜻을 세울 수가 없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꼼짝 못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A] 나는 문갑 위에 조선 시대 때 제기(祭器) 하나를 놓고 무시로 바라본다. 그리 오랜 것은 아니로되, 거미줄처럼 금 간 틈틈이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가 폭 배어 있다. 날카롭게 어여넌 여덟 모의 굽이 우뚝 자리 잡은 위에 얹고, 우긋하고, 매끄럽게 연잎처럼 자연스럽게 변두리가 휘쩍 피인 그릇이다. 고려자기 같은 비췌빛을 얹게 띠었는데 그 맑음, 담수에서 자란 고기 같고 그 넓음, 하늘이 온통 내려앉아도 능히 다 담을 듯싶다. 그리고 고요하다.

가끔 옆에서 묻는 이가 있다. 그 그릇이 어디가 그리 좋으나 함이다. 나는 더러 지금 쓴 것과 같이 수사(修辭)에 힘들여 설명해 본다. 해 보면 번번이 안 하니만 못하게 부족하다. 내가 이 제기에 가진 정말 좋음을 십분지 일도 건드려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그럴싸한 제환공(齊桓公)*과 어떤 노목수(老木手)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번, 환공(桓公)이 당상(堂上)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庭下)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오니까 물었다.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올시다그러 한다. 공인(工人)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꺼기 될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 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늙은 목수 자약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한다.

[B] 저는 목수라 치목(治木)하는 예를 들어 아뢰오리다. 톱질을 해 보더라도 느리게 다리면 엷먹고 급하게 다르면 톱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다리는 데 묘리(妙理)가 있습니다만,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옛적 어른들께서도 정말 전해 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러해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하옵니다.

환공이 물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설화(說話)나 문장이나 그것들이 한 묘(妙)의 경지(境地)의 것을 발표하는 기구(器具)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 와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선승(禪僧)들의 불립문자*설에 더욱 일깨워짐이 있다.

— 이태준, 「일분어」 —

* 제환공: 중국 제나라 15대 임금.

* 자약하여: 큰일을 당해서도 놀라지 아니하고 보통 때처럼 침착하여.

* 불립문자: 문자로써 세우지 않는다는 뜻으로,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문자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과거 지향적 가치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경험과 옛이야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글쓴이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우화를 제시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5. [A]와 [B]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의 ‘나’가 ‘제기’를 보며 궁극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제기’를 대하는 ‘옛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군.
- ② [B]의 ‘늙은 목수’는 ‘환공’이 읽는 ‘성인의 책’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A]의 ‘나’와 [B]의 ‘늙은 목수’ 모두 말이나 문장이 표현하려는 내용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있군.
- ④ [A]의 ‘옆에서 묻는 이’와 [B]의 ‘환공’은 말과 글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군.
- ⑤ [A]의 ‘제기’가 [B]의 ‘책’보다 후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